

	<b>일본 (도쿄) 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4. 4.

## CEPA Insight

- ①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 현황과 일본의 환율 관련 시각
- ② 중소기업의 DX 도입 지원
- ③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 ①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 현황과 일본의 환율 관련 시각

- 3월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이 원인
  - 10일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3엔 대로 34년 만의 엔저 수준을 기록\*.
  - 이는 3월 미국 CPI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에 기인
  - \* 최근 엔·달러는 152엔대에서 교착상태였는데, 이는 시장이 정부 환율개입을 경계한 것 등이 영향
-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인가에 대해
  - 9일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환율이 경제, 물가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이르면 당연히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한다고 언급\*
  - \*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24년 10월을 가장 빠른 추가 금리인상(0.10% → 0.25%)로 예상
  - 미·일 금리차이가 축소되어도, 엔저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 현지 생산확대로 예전처럼 무역흑자를 낼 수 없는 일본수출 구조가 존재. 또 원전 가동 중단도 무역적자 확대에 영향
  - 엔저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내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출처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24. 4. 11. / 코트라, 2024. 4. 15.)

《 환율 관련 신문 사설 》 (제목) “환율 안정은 국제 협력과 경제 개혁의 양 축으로”

- 엔화는 달러 대비 34년 이래 최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은 중동의 긴장 상황 등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않고, 각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 억제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함.
- 4. 17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엔화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일본과 한국은 모두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이 개입해 환율 안정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의미가 있음.
- 시장동향에 따라, 2022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 가지 방안이며, 개입을 통해 달러 절상과 엔화 절하의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는 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좁히기 어려움.
-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적 상호감시와 정책 조율로 돌아가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경제강세는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 제약으로 꼽고 있음. 미국 재정신뢰도하락은 세계경제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므로, 다자간 차원에서 논의되어 조율되어야 세계 경제를 더욱 탄력화 할 수 있음
- 일본이 환율의 장기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일본 복귀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강력히 장려하고, 수출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함.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본다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어 엔화 가치 하락을 수습할 수 있고, 이는 일본 경제 부흥의 신호가 될 수 있음.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4. 22.)

## ② 중소기업의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도입 지원

- 경제산업성(METI)은 대기업보다 느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구현할 때 중소기업(SME)에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은행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지침을 작성

- 이 가이드 라인에서 지역은행, 상공회의소, 지역컨설팅기업을 중소기업의 DX추진에 역할을 하는 '지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과 함께 (1) DX 전략 수립, (2) 디지털화가 필요한 운영 식별, (3) DX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 검토에 협력하도록 요청
- 관련 내용의 예로, 상품 개발 등 본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인사·재무·근태 관리 등 간접 영업으로 DX를 추진하는 것이 운용 효율화로 이어지고, 중견·중소기업에서는 간접업무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핵심 사업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기관은 정보처리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도 고려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디지털화가 덜 되어 있음. 도쿄 쇼코 리서치의 2023년 8월 조사에 따르면,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은 응답자 66%가 DX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업은 41%의 응답자가 DX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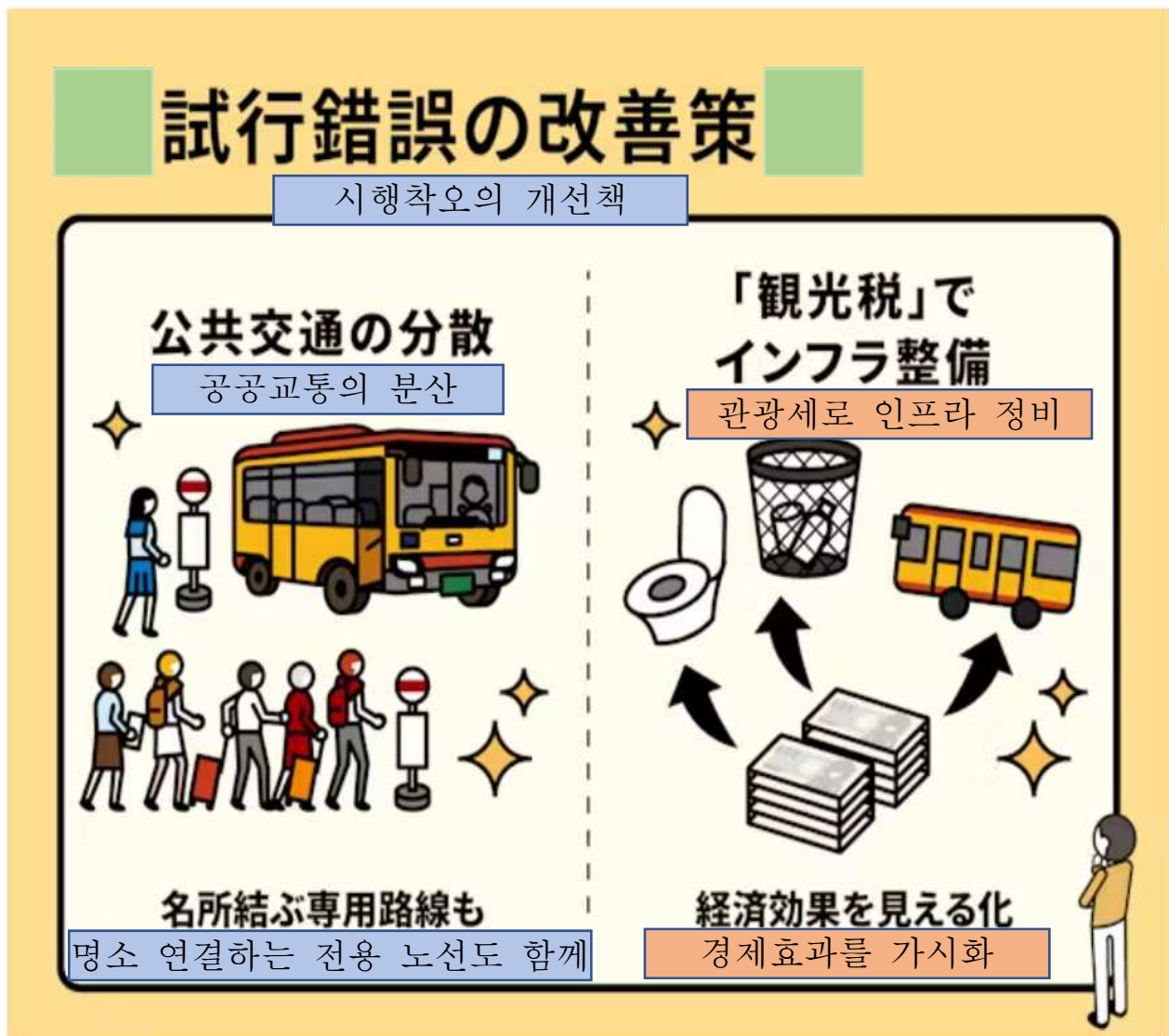
### ③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은 2024. 3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8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교통체증 등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재점화 되고, 외국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이해가 옳은 것인지 논의 필요
- \* 해당 단어는 2016년 미국 언론에 처음 등장했고, 관광지의 수용 한계를 초과해서 많은 여행객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회적 문제를 의미
- 여행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혼란의 주요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의한 것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여행객이 엔화 약세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국내관광 캠페인 등으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관광에 집중되므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이 일본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을 처음 방문객

비율(약 40%)이 높은 이유도 있음.

- 관련한 해외사례조사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되지 않고 있음. 한편에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설치하거나, 이른 아침에 마을 주변을 안내하는 등 생활과 관광을 분리하여 공존하는 움직임이 있음. 하지만, 오늘날의 여행자들은 유명한 옛 유적지를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현지생활을 보고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보임.
- 또한, 관광세를 도입하여 인프라 정비도 고려 필요(관광산업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가시화)

《 대안 제시에 대한 인포그래픽 》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4. 22.)